

Pucci 작품에 나타난 조형적 특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ormative speciality through Emilio Pucci's work

박선경

수원대학교 가정학과 의류직물학과

목차

1. 서론

2. 푸치작품에 나타난 특징

2-1 푸치의 생애와 예술성

2-2 작품세계

(1) 1950년대

(2) 1960년대

(3) 1970년대

(4) 1980년대와 그 이후

2-3 직물 프린트

3.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에밀리오 푸치(Emilio Pucci)는 자연스러움과 여성스러움을 강조시킴에 의상의 절대적인 의미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의 디자인에 비비드(vivid)하며 브릴리언트(brilliant)한 색채의 대담하고 추상적인 프린트를 통하여 자신의 창조적인 정신세계와 경험을 자기창조의 미적세계로 표현하고있다.

본 논문은 그의 작품을 통하여 그의 예술적 개별성이 어떻게 표현되었나를 이 해 그의 독특한 색채의 프린트를 통하여 그의 예술적 인식이 어떻게 조형화하여 표출되었는지를 연구하였다. 그는 전쟁의 경험으로부터, 새로운 경험에로의 지속적인 열정으로 세계 어디든지의 여행으로부터 절대적인 영감을 받아 그의 창조적인 정신의 세계를 그의 진정한 내부를 내보여놓는 원동력으로 삼았다.

그의 조형세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21세기를 앞둔 오늘날의 의상이 생활속에 확실한 자아표현, 자기완성과 창조의 미적 방편으로 선택되어 지고 있는 이때, 현대 의상디자인이 우리에게 의해 연구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생각코자 한다.

Abstract

Discovered as designer of own ski loths by American potographer Toni Frissell, in 1947 ; designed ski wear for Lord & Taylor store in New York following year. He opened a shop on Capri in 1949 and in 1950 he founded "Emilio", his couture house.

His fortune was simple silk jersey chemises and very strong prints using bold colour in abstract patterns. A pucci print was immediately recognizable and, although often based on medieval heraldic banners of the sort waved at the "Siena Palio", so utterly of the moment that it could be taken as a classic symbol of the late 1950s and early 1960s. He was a brilliant colourist and his colours became the colours of the decade : hot pink, lime blue, purple. He seemed able to capture the sun and fun of Italy in his print and, along with Galitzine, he can take the credit for creating the concept of relaxed, informal elegance in Italian faslion.

Key Word : Vivid & Brilliant color, Boldly Patterned, Emilioform.

20세기 이후 우리 앞에 전개된 의복의 현상은 미술, 음악, 문예와 마찬가지로 복잡한 양상을 보이면서¹⁾ 변화하고 있고, 의복이 육체의 하빌리먼트(habiliments)일뿐만 아니라 정신의 베스츄어(vesture)이며, 그시대 그 사회의 생활감정의 표현내지는 상징으로써 깊은 의미를 갖는다²⁾면 특수한 현상을 바탕으로 창조한 특수한 의복의 형태(선, 형태, 색채, 재질)는 그시대의 집합적 사고와 미적가치에 대한 내적형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보는 이로 하여금 이 의복의 심미적 표현기능을 전달받는 것이다.³⁾

조형작품은 단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인 것의 표현이기 때문에 의상디자이너의 조형능력은 그의 경험과 이론, 연구방법의 전개에 따라 달리 나타나 의복의 조형적인 구성과 성격은 달라진다.⁴⁾ 즉 디자이너의 직관과 경험, 구성능력의 차이에 따라 그 조형성은 달라지는 것이다.

1950년대 뛰어난 창의성으로, 세계의 상계를 이끌어오는 파리패션계의 그 권위를 이태리로 옮겨놓은 혁신적인 일을 감당한 그 장본인인 푸치(Pucci)는 자연스러움과 여성스러움을 강조시킴에 의복의 절대적인 의미를 부과한 동시에 색채와 프린트를 통하여 그의 창조적인 정신세계와 경험을 자기창조의 미적세계로 표현하고 있다. 푸치는 1948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바지를 캐주얼 웨어로서 하나의 생활방식의 하나로 정착시키는데 공헌한 사람이다.

본 논문은 시대별로 그의 작품세계를 통하여 그의 예술적 개별성이 어떻게 표현되었나를 이해하였고 그의 독특한 색채와 프린트를 연구함으로써 그의 예술적 인식이 조형화하여 어떻게 표출되었는지 그의 조형세계를 분석해보았다.

21세기를 앞둔 오늘날의 의복이 생활속의 확실한 자아표현, 자기완성과 창조의 미적방편으로 선택되어짐을 볼때 현대의 의복이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연구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생각코자 한다.

2. 푸치 작품에 나타난 특징

2-1. 푸치의 생애와 예술성

푸치란 이름은 플로렌스란 단어와 사실상 동의어가 되는 13세기에 뿌리를 두고있는 귀족가문으로 러시아왕실 혈통도 지니고 있다. 1914년에 태어난 에밀리오 푸치는 예술가로서 디자이너, 사업가이었고 정치가로서 1963년부터 1972년까지 이탈리아 의회의원이며, 1965년부터 1990년까지는 플로렌스 시의회의원을 지냈고 수영, 테니스, 펜싱, 특히 스키에

능해 1934년 이탈리아 올림픽 선수단이기도 했다. 이후 그의 스포츠에 대한 능통함과 열정은 그의 디자인 작품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1932년 밀라노대학 농학과, 1935년 미국 조오지아대학을 다녔고, 1936년 오레곤주 리드대학에서 스키팀주장으로 있을 때는 항상 모든 일에 자신감으로 차있던 푸치는 리드 스키팀의 유니폼을 처음으로 디자인해보았다 한다. 다시 이태리로 돌아와 1941년 플로렌스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38년 공군에 입대했을 때, 전쟁중 벤티노 무소르니(Benito Mussolini)의 딸인 에다 차아노(Edda Ciano)를 구하는 특명을 받고, 독일비밀요원에게 잡혀 갓은 고생끝에 성공리에 정의롭게 그녀를 구하기까지 에밀리오 푸치의 인간됨을 엿볼 수 있다.⁵⁾

에기치않은 전쟁기간의 사건을 겪으면서 그에게 요구되었던 자제심, 용기, 창의력, 그리고 상상력은 그후의 푸치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2차대전중 6번이나 훈장을 탄 그는 철저한 책임감, 그리고 맡겨진 일에 완벽함으로 그의 인생을, 그의 예술의 세계를 펼쳐나간다.

그의 작품에 나타난 특징은 역시 전쟁으로부터 많은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다. 적국의 레이다망을 피하기 위하여, 뇌관폭파 파일럿들은 낮게 날면서 수천마일의 바다위로 미끄러지듯 날았다. 푸치는 이 지속적인 움직임과 그앞에 펼쳐진 끊임없이 변화하는 색채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고⁶⁾ 이 모든 긴박한 변화의 소용돌이는 그의 디자인 모두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가 18세때 밀라노 대학의 입학을 위해 플로렌스를 떠날 때를 “새로운 존재감과 함께 고립된 플로렌스에서부터 외부로의 환상적인 변화는 마치 정글을 빠져나오는 것과 같았다.”⁷⁾ 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 에밀리오가 한번 이 넓은 영역을 경험하자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 그의 세계 어느곳으로든지의 여행은 그의 새로운 경험에로의 지속적인 열정으로 “모든 좋은 이미지를 여행으로부터 동반한다⁸⁾”는 그의 생각대로 그의 창조적인 정신의 세계를, 그의 진정한 내부를 내보여주는 원동력으로 삼았다.

발리지방에서 탄자니카지방까지의 광대한 여행으로부터 그지방 특유의 민속복의 형태와 그 디테일, 토속적인 방법의 염색법, 이 모든것들은 그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그림. 14) 해안국인 이태리의 태양과 그 빛, 불란서 프로방스지방의 자연과 거기에 어우러진 꽃들, 그리스의 건축물들 러시아의 돔(Dome)형태의 교회들, 다양한 지역에서의 그의 생활여건 등은 그에게 무한한 영감의 근원으로써 그의 작품의 프린트 문양에 크게 반영됨을 볼 수 있다.⁹⁾

1) 박명희,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의 의상에 나타난 형태미와 상징성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Vol.28, No.1, 1990, P.9.

2) James Laver, 「Fashion make Social History」, N.Y. : The Brooklyn Museum, 1962, p.6.

3) 미학연구회, [미학] 서울 : 문명사, 1987, p.187.

4) Masian L. Davis, 「Visual Design in Dress」, : Prentice-Hall, Inc., 1980, pp. 279-280.

5) Shirley Kennedy, 「Pucci A Renaissance in Fashion」, N.Y: Abbeville Press. 1991, pp. 23-25.

6) Ibid., p. 25.

7) Ibid., p. 22.

8) Ibid., p. 35.

9) Shirley Kennedy, op. cit., p. 35.

그는 바다밑으로 직접 잠수해 들어가서 그곳에서 볼수 있는 지중해의 아름다운 수중의 색채들-터키색, 산호색, 에머럴드색등의 선명한 색채들을 고운면이나 실크위에 강렬한 색조로 옮겨놓는다. 이탈리아 실크, 염색의 도시 코모(Como)에서 화학자와 염색전문가들과 함께 자신의 감동속에 있는 그 선명한 색조가 직물에 그대로 표현될 때까지 색을 직접 섞어가며 다양하게 시험해 보고-연구하였다. 푸치가 처음 실크위에 직접 염색한 스카프는 카푸리(Capri)주변의 지도를 정교하게 디자인한 것으로 "처음에는 주위에서 그 화려한 색채를 보고 미친 짓이라 판단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에 사람들은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라고 그는 회상했다.¹⁰⁾

2-2. 작품 세계

(1) 1950년대

유럽의 예술지상주의는 풍요로운 미국의 유흥론에 대항하여 문화적 개혁을 달성하게 된다. 미국의 마살 플랜이 이탈리아의 재황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전쟁에 지치고 내핍생활에 속박된 국민들이 필요성을 느꼈던 충격의 요소와 신기함, 또 생명력을 가져야했던 "현대적 스타일"은 문화혁명의 도구로서 그 상징성을 지니고 나타나게 된다.

이탈리아인 기술공, 건축가들은 자동차디자이너, 가구디자이너와 함께 세련된 스타일의 코디네이터로 뛰어난 장인솜씨,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이탈리아를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나라로 재인식시키게 한다. 또한 자국의 경제를 신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이 "현대적 스타일"은 마치 전성기의 아르데코처럼 세련된 곡선으로 "여성스러움"을 강조시켰고, 1950년대의 가장 독특하고 널리 퍼진 양상으로써 이제까지의 전통주의를 젊음 쾌활함으로 바꾸어놓는 역할을 한다.¹¹⁾

패션, 헤어스타일, 자동차, 가구, 조명기구 심지어 화장술에 이르기까지 이탈리아스타일이 전세계에 걸쳐 각광받게 되었다.

1951년 7월 플로렌스 파리공에서 이탈리아 디자이너들의 콜렉션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국제적인 추종을 얻게되어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국제적인 콜렉션이 되었다. 푸치의 캐주얼웨어 밝은색 실크셔츠와 카푸리팬츠는 가장 성공적인 스타일로서 여기서 각광을 받게된다.¹²⁾(그림 1)

1947년 1월, 푸치는 여인을 위해 그가 디자인한 옷을 입고 함께 스키를 타고있는 모습을 우연히 바자(Bazar)지의 패션사진작가 토니 프리셀(Toni Frissell)에 의해 사진찍히므로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 푸치는 이때 이미 스키바지감의 수축성을 미리 검토하므로써 스키도중

스키복이 눈에 젖었을 때도 그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¹³⁾ 후에 그는 이 신축성있는 특수직물을 스위스 직물회사 헬렌카(Helena)에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고 이 직물은 오늘날 모든 스키웨어의 기본이 되었다.

이런 우연장은 스키웨어 디자인의 시작이 이후 패션에 영향을 주다가 사실상 세계를 지배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는 스포츠웨어가 품격있는 패션의 영역으로 인정받게 된다.

1949년 카푸리의 한 부티끄의 의뢰를 받고 만들어준 단순한 의상이 선풍적인 인기로 인해 카푸리에 "Emilio"라는 부티끄를 처음으로 열게 된다. 화려한 색상의 스포츠웨어는 사각형으로 재단된 셔츠를 바지위로 입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그 시대로써는 혁신적으로 여성의 몸매를 타이트하게 드러내는 짧게 트여진 발목길이의 팬츠와 함께 유명한 카푸리 스타일로 50년대이후 오늘날까지 바지를 하나의 생활방식으로 정착시키게 한다.

50년대 초기 당시에는 디오르(Dior), 발렌시아가(Balenciaga), 스키아파렐리(Schiaparelli)의 시대였다. 블란시의 꾸뛰르(Couture)는 구성적이며, 균형있고, 인위적인 형식에 미의 기준을 두고 있었지만 푸치는 이러한 딱딱함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우아하고 캐주얼한 의상 연출법으로 모든 약식행사, 휴양지 등 어느 곳에서도 잘 어울리는 멋스러움을 추구했다.

뛰어난 패션감각을 지닌 상류층 여성그룹에서 호응을 받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도 성공을 거두게된 이유로 첫째, 전후 급부상한 중산계급층에서 호응을 얻은 것으로, 그들은 지위의 상징을 갈구했고, 아방-가드(Avant-Garde) 한 푸치의 캐주얼룩으로써 최고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둘째, 급속히 전파하는 T.V. 매체의 영향과, 시청시간동안에는 옷이 편안해야 한다는 가능성이 푸치의 새로운 캐주얼의상에는 필수적인 요소로 등장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셋째, 그의 프린트는 10가지 이상의 색상을 요하는 복잡한 패턴으로 이탈리아 고유한 생활상의 일면 등이 표현되어 그 지역의 매력과 아름다움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는 요소를 지니고 있기때문이었다.

1954년 깃털처럼 가볍고 매끈한 실크저지로 만든 모자이크 타일무늬의 쉬프트 실크저지 드레스는 긴 여행중 전혀 구김도 가지않고 무게가 3.4온스 밖에 되지 않아 여행을 즐기던 당시 사람들의 시대적인 조류에 부응해 10여년을 걸쳐 인기를 얻었고,(그림. 2) 60년대에는 반드시 갖추어야하는 신분상징의 의상으로 자리를 잡는다. 실크저지는 그를 상징하는 섬유라 할 정도로 다양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지게 된다.

10) Ibid., p. 63-64.

11) 조규환역, 베비스 윌리어 저, [20세기 양식] 서울:수학사, 1993, pp. 131-194.

12) 정현숙역, 데이비스본 저, [20세기 패션], 서울:경춘사, 1992, p. 183.

13) Shirley Kennedy, op. cit., p. 57.

산업 예술 디자인의 급격한 발전은 전례없는 경제적 번영에 의한 원동력을 얻어서 활기찬 60년대를 이루면서 급격한 사회변화와 대중음악과 춤의 새로운 스타일을 경험하고, 모든 계층으로부터 아이디어가 속출했고 산업디자인 패션은 대중문화의 모든 것으로서 젊은이들에 의해 추종되어진다. 화가 빅텐슈타인(Vichtenstein), 워홀(Warhol)의 옵아트 캔버스에서, 피터 막스(Peter Max) 밀톤 그래저(Milton Glaser)의 광고미술인 도취적인 록(Rock)공연 포스터에서 나타나는 진동하는 색상-진하고 밝고 선명한 색상은 60년대 삶의 핵심요소로 작용했다.¹⁴⁾ 전통적인 사빌 슈트는 작은모자, 장갑과 함께 60년대 초에 유행하고 꾸레즈(Courges)의 선풍은 미니를 처음으로 추진시켜 60년대 패션역사에 중요한 발달을 이룬다. 히피족의 세력은 그 스타일에 영향을 끼쳤고 그룹 롤링스톤스(Rolling Stons)의 환상적인 분위기는 낭만주의 록을 불러일으켰다.¹⁵⁾ 과거 어느때 보다도 다양한 스타일의 선택의 기회가 제공되어져온 60년대 - 이 번영의 10여년 동안 "Emilio" 상표는 선망의 하나의 상징이었다.

1950년대에는 혁명적이라할 수 있는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실크렛이 바로 60년대에는 필연적인 것이 된다. 푸치는 10년을 앞서가며 직관적으로 시대의 기질을 읽음으로써 선정적이고 화려하고 부유하고 젊어보이기를 원하는 그의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채워줌으로써 60년대를 장식하게 된다.

여행지로부터 절대적인 영감은 60년대 그의 모든 컬렉션에서 프린트, 색상으로, 실크렛으로 표현되어진다. 이국적인 곳의 예술에서부터, 도취적인 꽃무늬, 우주폭팔에 이르는 무늬들의 현란한 배열을 디자인하는 그 다양한 색상과 함께 기교있게 실크렛속에 자연스럽게 합류시킨다.

그는 여러색조로 나열한 패턴의 스타킹, (그림 3) 타이즈, 팬티스타킹, 비치는 의상과 함께 착용되는 바디스타킹, 거기에 조화되는 구두와 핸드백디자인, 손수건디자인 등을 했고 디자이너가 남성용 의류에 그의 라벨을 사용한 최초의 사람이기도 하다. 스카프는 1960년대 중요한 악세사리품목으로써, 미세한 울, 면한냉사, 실크쉬폰으로 드레스 브라우스와 조화시켜 아외복의 짧은 상의로 벨트로 머리터번으로 핸드백 손잡이에 다양하게 사용되어졌다. (그림 4)

50년대 속옷은 매우 구조적이었고 딱딱하였는데 푸치는 그의 철학대로 몸의 움직임에 따라 같이 편안하게 움직여지도록 그의 라제리를 만들었는데 속옷을 위한 특별한 패턴을 넣은 "Viva"팬티거들은 몸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며 자연스럽게 바지의 선을 살려주는 부드러운 속옷으로

14) 조규환역, 베니스힐리어 저, op. cit., pp. 196-250.
15) 정현숙 역, 데이비스 본 저, op. cit., pp. 194-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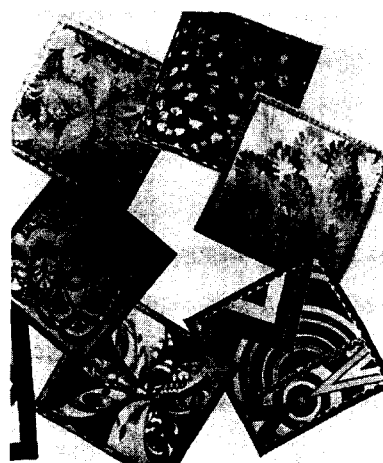
(그림1) "Paolo" 프린트의 셔츠와 타이프한 펜츠의 카프리스타킹 (1953) Kennedy S: pucci, p. 58.



(그림2) 무게 248g의 실크저지 드레스 (1954) Kennedy S: pucci, p. 79.



(그림3) 나열 프린트의 팬티스타킹과 구두 (1969) Kennedy S: pucci, p. 138.



(그림4) 계속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스카프 프린트 Kennedy S: pucci, p. 147.

16) Shirley Kenedy, op. cit., pp. 153-169.
17) 정현숙역, 데이비드 본 저, op. cit., pp. 228-260.

가벼운 속옷시대를 열게한다.

65년 시작한 향수디자인, 65년 브랜니프 항공사의 유니폼들(그림 5), 60년대 후반이후 계속된 홈퍼니싱(Homefurnishings), 타피스트리 러그(rug) 디자인, 60년대 초에 제작된 6장의 석판화는 수집가에 의해 소장되어있고 77년 제한된 모델인 포드사의 링컨콘텐탈 마크 IV의 내외부 디자인, 71년 아폴로 15호의 상징마크디자인 등을 했다.¹⁶⁾

푸치는 다른 의상 디자이너들이 시도하기를 두려워했던 비리류상품까지도 처음으로 디자인을 시도하였는데, 그는 그의 상표로 제공되어지는 어떤 물품에 대해서도 심지어 담배포장에 이르기까지 그는 자신이 모든 디자인을 직접적으로 주관하였다. 만약 작품에 그가 흥미를 느낄수 없었다면 아무리 경제적인 이익이 있더라도 자신의 상품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그의 디자이너로서의 이름을 지켰다.

(3). 1970년대

10여년을 약해져가고있던 독재적인 디자이너의 시대는 끝나고 일관된 패션의 흐름은 이제 더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 이제 패션은 지시적인 것이 아니라 제시되어져야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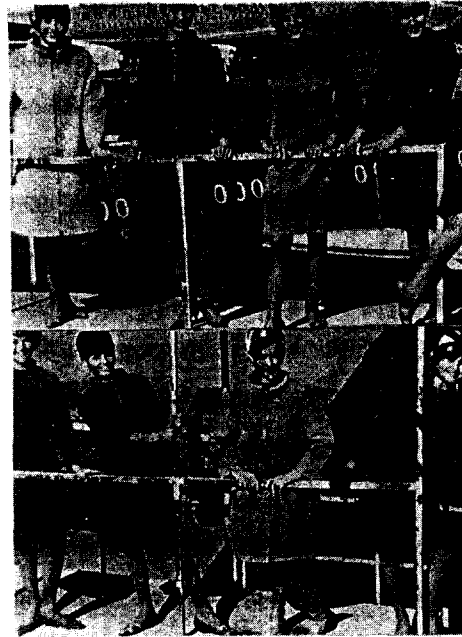
햇팬츠와 플랫폼 구두창 플레어드바지와 디자이너상표의 진은 남녀 모든 계층에서 유행하게 된다.

초반의 베트남전쟁은 군복스타일을 유행시켰고 중반기는 20-30년대에 대한 향수로 레이어드룩이 유행되었다. 73년 중동전쟁으로 인한 오일 속크는 경기후퇴를 가져왔고 여성들의 노동력을 필수적인 것이 되어 이 필연성은 패션산업에 큰 영향을 끼친다. 손질하기 쉬운 합성섬유가 나타나고 여성해방론의 제창은 여성의 외양보다는 지성과 내실을 요구하게 된다. 사회는 늘 가장 힘있는 사람들에 의해 착용된 의상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 물가상승은 점점 생활에 영향을 받아서 노동세력의 진출로 남녀를 위한 노동복을 대중화시켜 70년대의 기본 일상복이 된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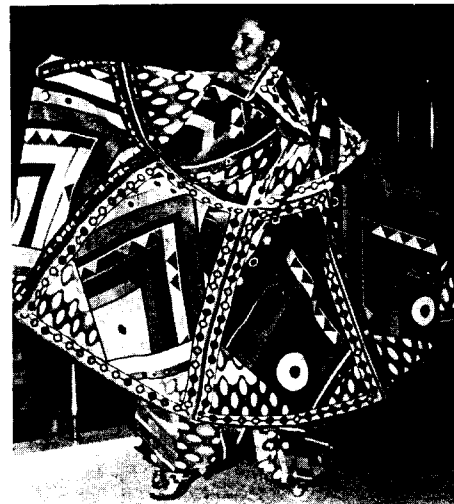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이런 격동의 70년대에 화려한 프린트, 밝은 색상, 선정적이고 우아한 상류사회 이미지를 갖춘 푸치의 의상들은 이 시대에 도저히 조화를 이룰수가 없었다.

푸치의 명성이 쇠락한 원인은 그가 이러한 시대적인 조류에 타협하지 않고 계속 자기의 것을 고집하는데 있다. 또 70년대는 패션마케팅이 기업의 주요역할을 책임지는 시대였으나 푸치는 광고나 판촉은 하지 않았다. 그는 소비자에게 지불이 요구되어지는 광고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룩(Look)의 경계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¹⁸⁾

드라마틱한 패턴의 벨루어케이프(그림. 6)는 휴양지에서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었지만 1978년 삭스(Saks)의 푸치 부티고는 문을 닫게 된다. 1978년 아랍국들의 부가 절정에 달했을 때 아랍국들의 부유한 여성들은 그 환상적인 프린트에 모조 보석을 손으로 수놓은 드레스로 그의 충실한 고객이 되었으며¹⁹⁾ 이러한 핸드비딩(hand-beading)은 오늘날 이태리에서 최고의 고가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바레인, 카이로, 홍콩, 시드니, 와테칼로, 싱가포르, 팜비치에서의 패션쇼등으로 비록 명성을 얻진 못했지만 계속적으로 그는 작품활동을 추진해 나간다.²⁰⁾



(그림5)
브랜니프 항공사의 유니폼 디자인 (1965) Kennedy S: pucci, p. 155.



(그림6)
비바라(Vivara) 프린트의 패턴워크 (1970 중엽) Kennedy S: pucci, p. 176.

16) Shirley Kenedy, op. cit., pp. 153-169.

17) 정현숙역, 데이비드 본 저, op. cit., pp. 228-260.

18) Shirley Kennedy, op. cit., pp. 173-175.

19) Ibid., pp. 177-179.

20) Ibid., pp. 186-187.

1900년 이후 매 10년마다 특별한 스타일이나 테마에 의해 그 특징을 이루었다면 1980년대의 최고의 특징은 1920년대이후 매 10년에 대한 항수와 그 스타일의 부활이었다.

80년대초 다이아나(Diana)비의 이미지는 유행의 새로운 지침이 되어 신낭만주의라 칭하며 여성들은 몸매를 더 강조하여 정숙된 미를 추구하며 우아한 여성으로 보이기를 원했다. 레이스로 처리된 화려한 실크류, 인조섬유의 사틴류등을 현대기술의 개발은 1950년대의 그것보다 더 관능적이고 육감적인 것으로 만들어 냈다. 80년대의 실업과 경기후퇴는 지위상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유퍼(Yuppies)들의 세련된 룩, 체중조절을 위한 에어로빅, 체조의 유행은 남여모두에 의해 스포츠용 옷들이 일상생활 패션에 보편화하게 된다.²¹⁾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은 다시 푸치의 시대를 도래하게끔 요구하게 된다. 1985년 뉴욕 바니(Barney)에 푸치 코너를 다시 오픈한 그는 1960년대를 연상케하는 자유롭고 야성적인 스타일의 신축성있는 상하의가 붙은 바디슈트(bodysuit)(그림 7-1)를 그의 고유의 색인 파랑초록 터키옥 색 보라색의 물결무늬의 패턴을 채색시켜 등장시킨다. (그림. 7-2) 1987년의 컬렉션에서는 예의 시에나(Siena)의 "palio"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50년대말 그의 프린트가 재등장하기도 했다.(그림. 7-3)

푸치룩의 재활력은 다른 디자이너의 작품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난다. 스테판 스프라우스(Stephan Sprouse)의 코트와 타이즈, 깍기는 미니드레스는 고대벽화모양의 프린트로 푸치가 바로 50년대말 유니타드(Unitand)와 티셔츠에 가방과 신발로 코디네이트시킨 "룩" 그대로를 재현시킨 것이었고, 니트 디자이너 아드리안느 비타디니(Adrienne Vittadini)는 87년 컬렉션에서 푸치가 사용했던 지중해색조-터키색, 산호색, 에머럴드색 등의 선명한 색채들로 향해생활이 프린트된 드레스를 선보

이며 푸치에게 경의를 표하기도 했다. 1980년대 후반 뉴요거리의 타이트한 스판덱스 짧은 옷과 네온칼라의 소매없는 셔츠는 60년대 푸치의 활동적인 스포츠웨어인 바디슈트 캡슐라(Capsula)의 재현이었다.(그림. 7-3)

1988년 미국색채협회의 돌로르 워트(Dolores Ware)는 푸치색상은 이제 1960년대 패션의 부활의 일부로써 도래한다고 말하면서 그의 밝은 색상과 프린트는 많은 디자이너에게 강한 흥미를 주어 그들은 푸치의 색상을 연구하기를 원한다고 했다.²²⁾

1990년 3월 19일 우먼스 웨어 데일리(Women's Wear Daily)지에

서는 "푸치의 사이키델릭한 프린트들이 리크라(Lycra) 스판덱스나 니트 자가드로 다시 표현되고있다"라고 보도했다. 영국디자이너인 캐서린 햄멜트(Katherine Hammelt)가 그녀 자신의 패션쇼후 푸치바디슈트를 입고 나타났고 크리스찬 라코락스(Christian Lacroix)의 컬렉션에는푸치의 레깅스가 특색을 이루었다고 적고있었다.²³⁾

1990년 5월 보그(Vogue)지에도 밝은 색상 와일드한 프린트, 레깅스, 바디슈트 다양한 패턴의 실크셔츠를 입은 사진들이 게재되었다.²⁴⁾ 푸치의 디자인과 그의 신선하고 사실적이며 생생한 묘사와 현대적인 성격을 지닌 작품을 다룬 주요기사는 패션의식을 가진 전국의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플로렌스의푸치 회사에는 통재키 어려울 정도의 주문이 쇄도하게 된다.²⁵⁾



(그림7-1)
캡슐라 바디슈트 (1959).
Kennedy S: pucci, p. 47.



(그림7-2)
60년대 캡슐라의 재현으로
물결무늬로 채색시킴 (1987)
Kennedy S: pucci, p. 188.



(그림7-3)
50년대 "Palio" 문양이 재현됨 (1987)
Kennedy S: pucci, p. 198.

21) 정현숙 역, 데이비드본 저, op. cit., pp. 262-280.

22) Shirley Kennedy, op. cit., p. 195

23) Ibid., p. 198.

24) Ibid., p. 198.

25) Ibid., p. 199.

2-3. 직물 프린트

2차 대전후 어두운 중간색이 주축이었던 패션계에 심한 갈증을 느끼던 세대에 바로 그 시대가 요구하는대로 이국적이고도 생기있는 색의조합을 완벽하게 제시했고 프린트에 있어서는 정교한 형태로써 르네상스시대의 이탈리아 길드(guild)의 깃발과 코스튬, (그림. 8) 팔리오축제를 묘사한 말경주와 기사들, (그림. 1) 르네상스 건축물의 돔(Dome)장식이나 표상, 모날(Monneale)의 모자이크, 시실리의 마차 플로렌스 칼시오(Calcio) 게임의 문장디자인(그림. 9) 포도원당을 경작하는 농부 나폴리의 밤풍경, 피사의 사탑, 보타첼리의 그림, 신비한 사원의 전경등, (그림. 10) 많은 이탈리아 고유한 생활상의 일면등, 독특한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카푸리에서 뻗어나온 선 하나가 자유의 여신상에 까지 이르는 것을 묘사한 50년대 초현실주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도있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의 그림과 이탈리아 전통적인 의상을 근간으로해서 표현해낸 그의 프린트의 문양들은 50년대로써는 초 현대적인 것들이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도 과거를 뒤돌아보면 60년대 문화 예술의 특성을 푸치는 그의 작품을 통하여 50년대말에 이미 암시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50년대 프린트가 움직임, 간결함,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놀라움 같은것을 볼수 있는 반면에, (그림. 11) 60년대 프린트는 소용돌이치면서 명확하고 절제된듯하며 추상적이며 기하학적인 도형의 형상화가 특징이다. (그림. 12) 연속적인 문양의 리듬감은 아름다운 흐름과 회전, 미래지향적인 도전을 느낄수 있다.

1960년 발리 여행에서 영감을 얻은 낭만적 자연적인 지방특유의 토속성위에 그의 열정과 함께 인도의 바틱(Batiks) 염색법을 도입시켜²⁶⁾ 구슬로 장식한 꽃과 기하학적인 선이 사실적으로 표현된 프린트를 볼 수 있다. (그림. 13) 62년 파리에 부티끄를 열면서는 파리의 아름다움에 취해 바로크적인 요소가 나타나는데, 흰 바탕위에 금색의 가는 선세공 문양을 볼수있고 스페인, 폴투칼 터키여행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깃털, 부채, 첩탐과 모스크, 스테인글라스 창문, 세라믹 타일문양, (그림. 14) 이집트 여행으로 부터 로인크로즈(Loincloth) 비키니의 상형문자 문양(그림. 15) 등은 63, 64년도 프린트에서 나타난다. 65,66년도 콜렉션에서 나타나는 자극적인 색상의 프린트(그림. 16)는 아프리카의 강, 계곡, 사막, 강렬한 태양에서 영감을 받아서 선, 원, 초생달모양 모퉁이형태등의 강렬하고 자극적인 색상의 문양으로 표현되고 있다.²⁷⁾ 엠파이어 웨이스트(waist)의 쉬프트, 몸에끼는 슈미즈, 마이크로미니, V넥의 보디슈트, 홀터탑드레스는 67, 68년도 그의 전형적인 셀루엣이고, 환각적인 형태의 꽃과 버섯,

궁녀들의 머리장식, 다양한 색상의 단상하는 리본 불타는 열대어 작은 곤충모양의 추상적인 문양과 기하학적 문양을 형상화시킨 프린트를 볼 수 있다. (그림. 17)

푸치의 색에 대한 영감은 여행에 대한 그의 열정으로 지중해의 휴양지와 타르칸(Tarcan)지역에서 반영된 밝은 색상들-진분홍, 청록, 보라, 라임그린, 에머럴드, 주홍, 복숭아빛, 금색등-이는 50년대 그의 작품에 주로 나타난 색상들인데 그 생생함과 명확함은 오히려 1960년대에 더많은 관심을 끌고 유행하는 색상이 된다. 그는 색상에 대한 감정표현에서 "나는 색을 언제나 새롭게 발견해내며 재결합의 조화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며²⁸⁾ 색의 조화의 일반적인 모든 규칙을 붕괴시키며 부조화로운 배색-초록과 산호색, 분홍과 황갈색, 파랑과 갈색-을 시도한다.²⁹⁾

1989년, 우먼즈 웨어 데일리지의 패션디렉터인 준 로쉬(June Roche)는 1990년도 색상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60년대 후반으로부터 도래한 매혹적인 느낌의 새로운 경향은 푸치 프린트 룩(Look)의 싸이키델릭한 보라, 초록 오렌지등이 기본적인 색상이다. 그의 정열적인 분홍, 감귤색 쪽소는 산호빛, 따뜻한 터키옥색등은 80년대 미국과 유럽의 톱디자이너들에 의해 재표현되었다."³⁰⁾ 고 함으로써 90년대의 색상에 대한 제의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새로운 직물과 염색방법의 개발을 위해 이탈리아 코모에서 캐시미어에 셀크를 혼합하여 신축성있는 직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새로운 제작방법의 모색과 그 염색법이 동원되는데 의상은 입는 사람과 함께 편안하게 움직이어야 한다는 그의 개념은 셀루엣으로 혁신적인 제안을 할 뿐 아니라 1959년 "Emilioform"이라 불리는 신축성있는 직물이 고안되어 바디슈트 "캡슐라"가 만들어진다. (그림. 7-1) 이 옷은 1980년대의 에어로빅 복이나 바디슈트, 스포츠웨어용 바지의 전조가 되었다. 여기에 미니드레스와 프린트된 신축성이 있는 타이즈와 겹들이자 그야말로 우주시대에 어울리는 의상으로 발전되어졌다. 이는 르네상스시대때 짧은 상의(Pourpoint)와 타이즈(Bas de Chausses)를 입은 남성복에서 영감을 얻어 당대의 감각이 결합된 미래를 향한 비전 바로 그것이었다.

발렌틴 로포드(Valentine Lawford)는 1964년 보그지에서 "푸치는 벨벳이나 타월천에 프린트를 하거나 리본을 첨가해서 울을 짜거나 셀크에 마섬유를 섞어 직물을 짜며 지속적인 직물개발에 우리시대로서는 모험적인 시도로써 직물기술을 선도해 나간다."라고³¹⁾ 그를 평가하고 있다.

26) Shirley Kennedy, op. cit., p.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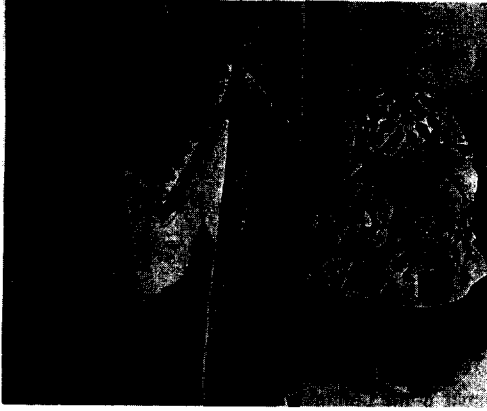
27) Ibid., p. 106.

28) Shirley Kennedy, op. cit., p. 38.

29) Ibid., p. 98.

30) Ibid., p. 195.

31) Ibid., p. 110-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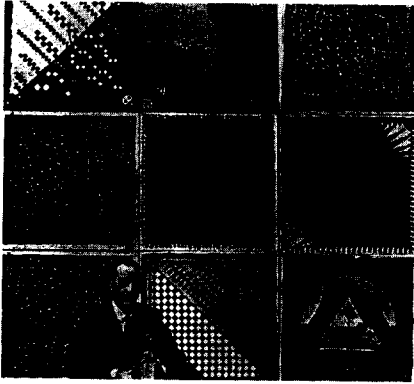
(그림8) (左) 길드의 깃발들. Kennedy S: pucci, p. 78.
(右) 사야나 "paño" 축제를 표현하는 깃발의 문양서초와
페치워크 스커트 (1957) Kennedy S: pucci, p.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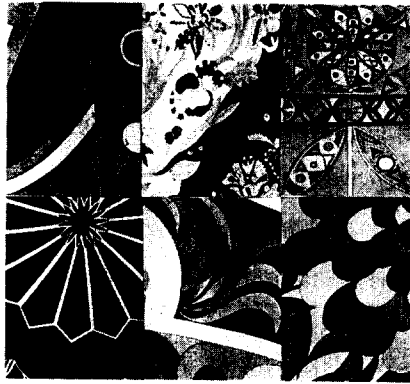
(그림9) "paño" 축제 깃발의 필리그리(filigree)
문양의 드레스 (1975)
Kennedy S: pucci, p. 77.



(그림10) 1950년대의 스카프
Kennedy S: pucci, p. 148.



(그림11) 1950년대의 프린트
Kennedy S: pucci, p. 90.



(그림12) 1960 - 1970년대의 프린트
Kennedy S: pucci, p. 115. p. 116.



(그림13) 사선과 사실적인 꽃의
문양을 대비시킴(1920)
Kennedy S: pucci, p. 102.



(그림14) 모스크, 스테인드글라스,
타일문양의 프린트 (1964)
Kennedy S: pucci, p. 137.



(그림15) 상형문자 프린트 (1964)
Kennedy S: pucci, p. 96.



(그림16) 아프리카 사파리(African Safari)의
색상론. 강렬하고 자극적인 선과 타원형의
프린트 (1965)
Kennedy S: pucci, p. 105.



(그림17)
(左) 사실적인 형태를 추상화 시킨 프린트 (1966)
(右) 기하학적 문양을 형상화시킴 (1967)
Kennedy S: pucci, p. 108. p. 117.

3. 결론

50년대 이탈리아가 처음으로 패션중심지로서 확립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한 푸치는 “카푸리 룩”의 스포티한 디자인을 우아함으로 1950년대 의상계를 캐주얼룩으로써 이끌어 오게 된다. 그는 선명하고 강렬하며 화려한 색채의 대담하고 추상적인 프린트에 의해서 강조되는 자연소재의 옷감으로 만들어진 활동하기에 편하며 실용적인 옷들이라는 푸치 개념으로 1950년대에서 60년대를 거쳐 80년대, 90년에 이르기까지 패션유행의 유형으로는 긴 시간동안의 한가지의 전형을 이루어놓았다. 많은 성격적인 요인이 70년대 푸치가 쇠락하는데 기여했던지 간에 80년대의 변화된 성향은 이후 다시금 이태리 르네상스의 재현을 가져오게 했다.

1990년 5월 14일, 40년대 후반 푸치의 디자인을 미국에 가져온 매조리 그리스솔드(Majorie Grisusold)는 “에밀리오 푸치는 수년전 패션을 현대화했다. 오늘날 그는 그것을 90년대에 독특하고 칼라풀하며 흥분되는 디자인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했다. 디자이너들은 푸치의 색채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오늘날 의상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의 의상을 연구하고 있고 특히 메트로폴리탄 코스츰 인스티튜트와 부루클린 박물관, F.I.T. 박물관에는 그의 의상콜렉션들이 전시되어 있다. 푸치옷은 수집가들에 의해 예술품으로 평가받고 그들은 시각작품(Graphic appeal)과 순수한 이태리안 워크맨십(Workmanship)으로써 가치를 두고 있다.

올래 카시니(Oleg Carsini)는 “대단하게 되기 위해서는 당신은 사넬 슈트(Chanel Suit), 푸치 프린트, 디오르의 뉴룩(New Look)과 같이 분명히 당신의 것인 디자인을 창조해야 한다.”라고 했다.³²⁾ 1963년 노엘 발스(Noel Balces)는 코스모폴리탄지에 푸치는 프린트를 디자인할 때 한 시간에 4-5개의 패턴을 그려낸다고 했다. 그는 이 패턴의 사이즈를 결정하기 위해 매 패턴마다 20장정도로 사이즈별로 확대, 축소시켜 그 패턴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사이를 걸어다니면서 마음속에서 요동하는 색채를 결정하여 입히고 원하는 사이즈를 선택한다고 했다.³³⁾

그에게 따르는 명성과, 90년대인 지금에서도 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있음은 그가 한 작품마다에 반복하여 완벽함을 시도하는 철저함과 그의 전인격을 창작세계에 몰입하는 작품에 대한 열정으로 자신만의 예술의 세계를 쌓아갔기 때문이었다. 또 각지역의 민속적인 요소들을 추상화시켜 표현함에 자연 그대로의 색상들로서 창작된 그만의 예술세계가 오염되지 않은 자연과 과거로 돌아가고픈 현대인의 바램을 생활속에서 의복을 통하여 충족시켜 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와 함께, 생활속의 자기완성과 창조의 미적 방편으로써 추구되어지는 현대의복이 여러각도에서 이해되고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박명희, [이세이 미야게(Issey Miyake)의 의상에 나타난 형태미와 상징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vol.28, No.1, 1990.
2. 미학연구회 [미학], 서울: 문명사, 1987.
3. 조규화역, 베비스힐리어 저, [20세기양식], 서울: 수학사, 1993.
4. 정현숙역, 데이비드본 저, [20세기패션], 서울: 경춘사, 1992.
5. Shirley Kennedy, 「Pucci A Renaisance in Fashion」 N.Y.: Abbeville Press, 1991.
6. Hillier, B., 「The style of the Century」 London : The Herbert Press, 1990.
7. Horn, M.J. & Gurel, M.L., 「The Second Skin」 Boston : Houghton Miffoqn, 1981.
8. Manybelle S. Bigelow, 「Fashion in History」 Minneapolie: Burgess Publiohing Co. 1979.
9. Colin Mcdowell, 「Twentieth Centry Fashion」 N.J.: 3Prentice-Hall, Inc. 1985.
10. Doreen Yardwood 「World Costume」 N.Y.: Soriber, 1978.
11. James Laver, 「Fashion make Social History」, N.Y.: The brooklyn Museum, 1962.
12. Marian L. Davis, 「Visual Design in Dress」: Prentice- Hall, Inc. 1980.

32) Shirley Kennedy, op. cit., p. 44.

33) Shirley Kennedy, op. cit., p. 113.